

# 포스트휴먼의 인간성 논의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비판

-공공신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성석환\*

## 1. 들어가며

2023년 생성형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상용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ChatGPT(3.5)’가 ‘오픈 AI’사를 통해 출시되었다. 현재 4.0 버전인 이 프로그램은 당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앞다투어 생성형 인공지능의 개발에 착수, 발표하였다. 2016년 미국 구글(Google)사의 딥러닝(Deep Learning) 인공지능 ‘알파고(Alpha Go)’가 바둑 경기에서 이세돌을 이긴 사건에 놀랐던 사람들은, 인간과 대화하며 정보와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분석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보며 영화에서 보던 미래가 곧 도래할 것처럼 상상하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인간과 사회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았다.

‘오픈 AI’의 초기 후원자였고 현 미국 자동차기업 테슬라(Tesla)의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전문가와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인공지능 연구에 일시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에 서명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들은 AI 시스템이 “인류에게 깊은 위협”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인공지능 연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부

---

\* 장로회신학대학교 부교수, 기독교와문화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하는 프로토콜(protocol)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sup>1)</sup> 또 딥러닝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도 인터넷 전문잡지 ‘더 와이어드(The Wired)’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수준의 지능을 달성할 수 있는 시점이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인공지능이 민주주의, 국가안보,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 전 지구적 방어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hatGPT가 아직은 인간의 상식, 추론, 이해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인공지능이 인간의 동료가 되기 위해 인간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케 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요청했다.<sup>2)</sup> 키신저(Henri A. Kissinger)와 그의 동료

---

1) *The Guardian*, “Letter signed by Elon Musk demanding AI research pause sparks controversy,”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mar/31/ai-research-pause-elon-musk-chatgpt> [2023.4.1. 접속]. 이 서명에는 개리 마커스(Gary Marcus), 스티브 위즈니악(Steve Wozniak) 등과 같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Amazon, DeepMind, Google, Meta, Microsoft 등의 엔지니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에 일부 서명자가 지지를 철회하였다.

2) Susan D'agostino, “A ‘Godfather of AI’ Calls for an Organization to Defend Humanity,” *The Wired* <https://www.wired.com/story/ai-godfather-yoshua-bengio-humanity-defense/> [2023.10.17. 접속]. 인터뷰에 응한 요슈아 벤지오는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컴퓨터 과학 및 운영 연구 부서의 교수이며, 몬트리올 학습 알고리즘 연구소의 책임자이다. 2018년 컴퓨팅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튜링상을 수상했으며, 그를 “AI의 대부”, “딥러닝의 대부”라 부르기도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기에, 이 사안에 대해 시사적으로 접근하는 매체들의 관심을 추적하여 그 발전의 추이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최근 타임(Time)지는 100주년 기념판의 표지 제목을 “인간성의 종말(The End of Humanity)”로 정하였고, “적자생존”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기사를 내보냈다. 여기서 헨드릭스(Dan Hendricks)는 “인간이 이미 자신의 우세적 지배를 포기하고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고했다. 아직은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협을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Dan Hendricks, “Survival of the Fittest: The evolutionary case that Humanity is already on its way to giving up its own dominance,” *Time*, 30-32 [2023.6.12 접속]). 이러한 입장은 『호모사피엔스』, 『호모데우스』로 이미 이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상가로 인정받는 유발 하라리(Yuval Harari)도 국내의 매경미디어그룹이 2022년 개최한 ‘세계지식포럼’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종말이 아니라 우세종으로서의 인간의 종말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참고: <https://youtu.be/LWiM-LuRe6w?si=5M-MUfnBNqCuwOdl>). 한편 영국

들도 “도덕적, 지성적 기초가 탄탄히 잡히지 않으면, 통치에 활용되는 기계가 인간성을 증진시키기는커녕 지배하면서 우리를 영영 함정에 빠뜨릴 것이다... 기계를 현실의 결정권자로 간주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회적 경향을 방지하려면 법적 강제가 아니라 강력한 문화적 규범”<sup>3)</sup>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사회에 끼칠 영향에 대한 논란의 배후에는 인문학적이며 종교적이며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그것은 “인공지능은 인간 이거나 혹은 인간과 유사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이다. 기계 인간 또는 로봇이 과연 포스트휴먼(Post-Human)으로서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공존하거나 혹은 인간을 대체하는 새로운 지구의 우세종이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상상력과 학문적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 논의는 우리 인류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타자로서의 포스트휴먼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윤리학적 질문도 동시에 제기한다. 그래서 소위 ‘포스트휴먼’이 실현된다면 과연 ‘인간성(Humanity)’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며,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현 인류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관한 토론이다.

백종현은 인간이 ‘자연적 존재’인가? 아니면 ‘이성적’ 혹은 ‘도덕적’ 존재인가를 묻는데, 인공지능과 인간이 모두 ‘인공물’이자 ‘자연물’로서의 본성을 지닌다면, 인간과 인공인간, 즉 포스트휴먼에게도 이성과 도덕의 실천이 가능한 인격체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의 끝없는 생명 연장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소망 때문에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 또한 개발

---

의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최신판에는 인공지능의 유용함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나 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인공지능은 이전의 첨단기술과는 달리 가난한 삶을 개선하는 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술의 보급 속도 역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며, 이미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가 보급되어 있어서 가난한 나라의 비숙련 기술자들이 인공지능을 통해 재교육을 받는다면 과거보다 크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The Economist, “Chabots for the bottom four billion,” 16-18 [2024.1.27 접속]).

3) Henri A. Kissinger, Eric Schmidt and Daniel Huttenlocher, *The Age of AI and Our Human Future*, 김고명 역, 『AI 이후의 세계』 (서울: 월북, 2023), 34.

될 것”이기 때문이다.<sup>4)</sup> 옥스퍼드(Oxford)의 플로리디(Luciano Floridi)는 이런 질문을 촉발한 것은 ‘특이점(Singularity)’을 신봉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득세 때문이었다고 본다.<sup>5)</sup> 그중 한 사람인 커즈와일(Raymond Kurzweil)은 수학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을 전용하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강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뤄지는 지점으로서의 ‘특이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그때가 되면 지능이 비생물학적 형태를 띠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 도발적인 주장은 결국 “인간이란 또는 인간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토론을 제기한다.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간의 이성, 도덕, 종교 등의 주관적 혹은 주체적 특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제시하는 근대철학적 태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며, 이른바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도 촉발한다. 신학계 역시 이 주제를 가장 활발하고 긴박하게 다루고 있다. 이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근원인 ‘신론’이나 ‘구원론’에 깊은 연관을 맺기에 더 본질적인 도전으로 다가온다. 본 논문에서는 소위 ‘포스트휴먼’ 논쟁을 두고 벌이는 ‘인간성’ 토론의 향방을

4) 백종현,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 『철학사상』 58 (2015), 147.

5) L. Floridi, “Singularitarians, Altheists, and Why the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H. A. L. (Humanity At Large), not HAL,” *APA Newsletter on Philosophy and Computers* 14 (2015/2), 8. 플로리디는 이 글에서 특이점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의 발전을 부정하고 그 의미를 맹목적으로 축소하여 긍정적인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이들도 비판한다. 그러나 플로리디는 이 글에서 자신의 대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6) 그는 이렇게 말한다; “특이점을 통해 우리는 생물학적 몸과 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운명을 지배할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도 제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을 것이다(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것과는 약간 다른 말이다). 우리는 인간의 사고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고 영역을 크게 확장할 것이다. 이 세기가 끝날 때에는 지능의 비생물화적인 부분이 순수한 인간의 지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해져 있을 것이다.” Ray Kurzweil,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김영남, 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서울: 김영사, 2007), 26. 한편, 기술적 특이점의 개념은 1953년 노이만(John von Neumann)이 처음 언급했고, 튜링(Alan Turing), 빈지(vernor Vinge), 커즈와일(Ray Kurzweil) 등이 반복해서 주장했다.

진단하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출현 이전에 활발하게 전개된 신학계의 대응을 평가한 후, 포스트휴먼 인간성에 대한 기독교윤리학적 논의를 과제로 삼고자 한다. 이미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상당히 시도되었으나, 대체로 전통적인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개념이나 삼위일체 신학에 기대어 성서신학 혹은 조직신학적 논의에 그치고 있는데,<sup>7)</sup> 향후 더 치열해지는 포스트휴먼 공론장에 실제로 참여하기 위한 ‘공공신학적 접근’<sup>8)</sup>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포스트휴먼의 인간성

‘포스트휴먼’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상적 배경을 공유하는 ‘포스트휴머니즘’과 다른 인간성을 논한다. 정보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현실 세계와 다른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 즉 시간과 공간의 속도와 차원이 다르게 구성되는 가상현실의 등장은 인간과 사회의 디지털화를 가속하고 있다. 가상공간은 비현실의 세계가 아니라 점차 현실 세계까지 통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실세계를 메타버스로 전환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 시공간의 한계에 놓여 있는 인간성과 타자와의 관계성에 큰 변형이 나타나고 있다. 변형되는 인간성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고도화된 인간으로서의 진보를 향한다.

보스트롬(Nick Bostrom)은 『수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에서 기계

7) 예컨대, 도로반투(M. Dorobantu)의 논문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ligion: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Zygon* 57/4 (2022), 994-95]은 전통적인 ‘하나님의 형상’의 신학적 개념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끼치는 영향은 부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발전적일 것이며, 심지어 ‘신’을 이해하기 위한 철학적 논의에 인공지능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깊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이 주제는 추후 더 깊이 논의한다.

8)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공공신학적 접근’에 관해 상술하지 못한다. ‘공공신학적 방법론’은 비신학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공론장에서 공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인 신학적 진술을 공적 언어로 번역하여 토론하기 위한 구성적(constructive) 방법론을 취한다. 전통적 신학 방법론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공론장에서 신학적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고하라. 성석환, 『공공신학과 한국사회』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29-37.

학습의 발전과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의 상업적 성공을 이유로 인공지능 연구의 위상이 회복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는 초지능의 출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가시화 될 것으로 보는데, 생물학적 인지능력의 향상이 현재 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기계 지능을 가능케 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의 기술적 발전이 목전에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초지능은 ‘질적 지능’의 단계에 진입할 것인데, 이는 아직 인간이 경험해 보지 못한 상태로서 동물과 인간의 지능이 대비되 듯이, 또 뇌에 장치가 있어 고통받는 이와 정상적 뇌 기능을 가진 이들의 차이에 서 보듯이, 지금과 전혀 다른 “기능성은 있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인지적 재능들”<sup>9)</sup>을 갖게 되면 초지능으로 도약할 것이라 예견한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을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간을 ‘지능’을 객관적이고도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적 실체로 파악하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포스트휴먼 논의 중 일부는 인간이 지닌 보편적 본성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창조하고자 한다. 다만 보스트롬의 경우 근대적 인간성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주장이 공론화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포스트휴먼을 주창하는 대부분의 담론은 근대적 인간에 투영된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명백한 반박이 그 배후에 있다.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를 향한 진보가 이념인 근대 철학이 과학기술과 만나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기획하는 것이 포스트휴먼 혹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면, 근대적 인간에 대한 반성은 공유하면서도 근대적 인간성 그 자체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포스트트랜스휴머니즘은 20세기 주류 담론이었던 구조주의와 후기구조주의의 주체성 담론으로 제기 되었었다. 이러한 단순한 도식이 논의를 마르크스 물질주의로 환원시킨다는 반성 아래, 인간의 본성을 지능의 기능이 아니라 법, 사회적 관습, 문화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공지능이 실리콘 물질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해서 인간일 수 없는 것은 ‘아직은 아닌’ 것이라 해야지 인간이

9) Nick Bostrom,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조성진 역,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 (서울: 까치글방, 2017), 112.

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는 독특한 시각도 있다.<sup>10)</sup>

보스트롬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이종관은 포스트휴먼이 “물리적 한계 극복이 관건이며, 인간의 두뇌를 컴퓨터에 올리면 인간의 정체성이 업로드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라 평가했다.<sup>11)</sup> 포스트휴먼은 ‘강한 인공지능’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체를 말한다. 학계는 종종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을 구분하는데, 후자가 계산 및 연산을 중심으로 인간의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로 보조적 역할을 한다면 전자는 인간을 능가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인간형의 등장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거나 더 발전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앞서 그것이 단순히 보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인간의 몇 기능과의 비교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것은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근대적 인간상을 반영할 뿐이다. 김진석은 근대적 인간상으로 인공지능의 인간성을 부정하려는 주장들, 즉 인간 본성의 도덕적이며 초월적인 면에 호소하는 하버마스(J. Habermas)나 샌델(M. Sandel)과 같이 공동체적 삶의 가치에 호소하는 등의 주장들을 인간 존재와 삶의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근대의 보편적 휴머니즘을 포기하지 못한 태도라고 비판한다.<sup>12)</sup>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는 로봇과 인공지능도 “사회적 행위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 인간주의적 행위자의 좁은 틀을 버리고 시스템을 행위자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sup>13)</sup> 인간에게만 소외될 수 없는 본성으로서의 도덕성과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이미 포스트모더니즘과 후기구조주의에 의해 해체되어야 한다는 도전에 처했던 전력이 있다.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10) J. Borenstein, F. S. Grodzinsky, A. Howard, K. W. Miller and M. J. Wolf, “AI Ethics: A Long History and a Recent Burst of Attention,” *Computer* 54 (2021/1), 101.

11)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고양: 사월의책, 2017), 39. 그러나 이종관은 이러한 인간성을 ‘유물론적 환원론’이라고 비판하면서, 물질로 환원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12) 김진석,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 (파주: 글항아리, 2019), 315-22.

13) 김진석,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 393

발생하는 소외, 경제적 불평등, 전쟁과 폭력, 기후 위기 등의 모순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세계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여 포스트휴먼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헤일즈(Katherine Hayles)의 주장이 주목받는다. 헤일즈에게 포스트휴먼에게 근대적인 인간성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정보의 신체화로서의 포스트휴먼은 인간이 네트워크의 한 일부인 체제이며, “인간과 포스트휴먼이 서로 다른 신체화, 기술, 문화에서 비롯된 역사적으로 특수한 구성체”이다. “포스트휴먼의 존재의 바탕이 소유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컴퓨터라고 생각할 때 등장하며, 따라서 지능을 가진 기계와 매끄럽게 접합될 수 있다.”<sup>14)</sup>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앞서 언급한 가상공간의 인간이나 공동체의 정체성은 AI나 로봇의 신체를 입고 근대적 인간을 극복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된다.

한편, 포스트휴먼을 ‘인간 대 기계’라는 근대의 인간중심주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생명 중심’의 새로운 생명체의 출현이라는 윤리적 요청으로 해석하려는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포스트휴먼이 신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 것이거나 탈인간을 외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모순적 권력관계를 반성하고 포스트휴먼의 실체적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도이다. 브라이도티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수립하기 위해 ‘포스트 휴먼’ 담론을 새로운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유럽 중심의 인간성이 다층적이고 유연한 인간 이해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외와 배제의 정치학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반성이 여전히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분법적으로 수행해온 탓이다. 그래서 포스트휴먼은 “다수의 소속을 허용하는 생태철학(eco-philosophy) 안에서 다양체로 구성된 관계적 주체”<sup>15)</sup>이다.

14) Katherine Hayles, *How we beco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S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파주: 플래닛, 2013), 77.

15)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이경란 역, 『포스트 휴먼』 (파주: 아카넷, 2015), 67. 브라이도티의 주장이 갖는 윤리적 함의에 대해 다음 장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다.

결국 포스트휴먼의 인간성은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에 근거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상을 극복하려는 의도를 포함하여, 나아가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인간상은 객관적 기능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포스트휴먼 논의는 기계나 물질에도 생명으로서의 행위체가 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다만 이것이 단지 근대적 인간의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성찰이 목적인지, 아니면 실제로 인공지능과 사이보그와 같은 인공 인간 혹은 기계 인간을 정당화하는 목적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은 기술적으로 특이점에 도달하지 않은 시점이고, 포스트휴먼을 위한 법적 지위나 권리에 대한 지구적 합의를 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술발전 속도와 전 지구적 공론화를 볼 때, 곧 이러한 도전적이며 위험한 시기가 도래하리라는 것이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이들의 인식이다.<sup>16)</sup>

### 3. 포스트휴먼의 인간성에 대한 비판

포스트휴먼이 제기하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한 비판은 포스트휴먼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는 포스트휴먼이 근대적 인간성을 성찰하고 도전하는 지점에 주목해야 하는 의미에 더 집중하는 주장이 많다. 레이니어(Jaron Lanier)는 ‘특이점(singularity)’을 일종의 ‘목시론적 아이디어’<sup>17)</sup>라고 본다. 마치

16) 앞서 언급한 특이점주의자인 커즈와일은 향후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2010년경에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만들어질 것이고, 2020년경에는 개인용 컴퓨터로도 가능해질 것이다. 2020년대 중반이면 인간 지능에 대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모델을 만들게 될 것이다. 2020년대 말에는 인간 지능을 완벽히 모방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모두 갖춰지면서 컴퓨터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것이고, 더 이상 컴퓨터 지능과 생물학적 인간의 지능을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준이 되면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의 전통적인 장점과 기계 지능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Kurzweil, 『특이점이 온다』, 47.

17) Jaron Lanier, *You are Not a Gadget*, 김상현 역, 『디지털 휴머니즘: 디지털 시대의 인간회복 선언』 (의왕: 에이콘, 2011), 53.

종교와 같은 신념에 속한 것이며, 다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산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수십억 년 역경을 통과하여 얻은 내재적이고 진화적인 결과”이기에, 비트(bit) 역시 “현실과의 무수한 접촉으로 형성된 패턴으로 추상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비추상적 연속”<sup>18)</sup>이라고 파악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에는 포스트휴먼의 인간성을 물질로 대체하려는 일단의 시도에서 드러난 역설적 모순에 대한 지적이 담겨 있다. 근대적 인간 중심의 이원론적 인간성을 비판하려다가 인간을 물질로 대체하게 되는 모순을 말하는데, 이런 비판자들은 대부분 인간성이 근대적 이원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물질로 환원될 수 없으며, 그것은 매우 관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이종관의 경우 포스트휴먼이 유물론적 환원주의에 몰입하여 인간을 한 가지 존재 방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즉 기계나 인공지능의 대체되는 인간을 상상할 때, 근대적 인간주의를 비판하려는 의도로 몸에 대한 정신의 정치적 지위의 전복을 꾀한다면 그것은 역사나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이데거의 ‘현존재(Dasein)’의 개념을 빌려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존재 양식에 개방된 성찰적인 실존적 존재자가 인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진짜 생명체의 출현을 거부하지 말고 오히려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인간의 복제품이 아니라 살도 뼈도 없이 실리콘이라는 전혀 다른 매체로 생명의 원리를 구현하는 존재자가 출현한다면, 그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비윤리적이지 않을까?”<sup>19)</sup>라는 질문은 동물과 인간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질문들과 함께 브라이도터가 주장하는 ‘생기론’<sup>20)</sup>적 포스트휴먼의 논의는 인간의 실존적 존재 방식에 대한 진지한 존중

18) Lanier, 『디지털 휴머니즘: 디지털 시대의 인간회복 선언』, 245.

19) 이종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80.

20) ‘생기론(vitalism)’은 생명의 특징을 자기 스스로 조직하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기확장과 확산을 일으키는 원동력을 ‘생명’으로 보았다. 유물론적 입장에서 생명은 신체와 물질 안에서 드러나며, 기계론적 관점이 자연법칙과 물리학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고 보았던 것과는 달리 결정론적 관점을 비판하고 생명 고유의 생성원리를 가지고

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된다. 인공지능적으로 구상된 세계의 근본 성격은 규칙순환으로 간주된다. 자동화된 기계와 생명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이다.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구성하고 과거를 반추하는 인간의 능력은 현존재로서 탈존재적 존재 방식을 유지하는 ‘세계 내 존재’인 것이다.<sup>21)</sup> 그러나 포스트휴먼 혹은 트랜스휴먼의 존재 양식은 현존재적 시간성을 무력화하고 인가를 물체로 취급하는 꼴이라는 것이 이중관의 비판이다.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정당한 존재 방식이 되려면, 스크루톤(R. Scruton)은 과학주의에 입각한 인간 이해가 아니라 관념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책임감’과 ‘종교적 초월’이라는 의미를 해석하고 실현하는 인간 이해가 필수적이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분노, 원한, 질투와 같은 감정을 넘어서 존경, 헌신, 찬양 등의 감정으로 세계를 대응하는 인간은 타인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주체이며 권리를 지니며 의무를 다하여 자신의 미래와 과거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는 존재가 인간이다.<sup>22)</sup> 커즈와일이나 보스트롬처럼 진화생물학에 관점에서 포스휴먼의 출현을 기대하는 이들과 심지어 브라이도티나 헤일즈와 같이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이들 모두 마찬가지로 인간의 초월적이며 종교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물론 스크루톤이 주체적 인간을 전제함으로써 이들과는 교차되는 지점이 거의 없이 평행선을 이루고는 있지만, 디지털 세계나 포스트휴먼의 진화생물학이 타자에 대한 초월적 태도를 가능케 하는 성스러운 것들에 대한 경외심과 도덕적 삶에 대한 태도를 요청하는 것은 포스트휴먼의 존재 양식과는 거리가 멀다.

결국 포스트휴먼의 존재 방식이 될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기계 신체가 도덕적 행위자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스스로 해야 할 행위를 결정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도덕적 행위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으나, 포스트휴먼의

---

있다고 보았다. 브라이도티는 이 관점을 지지하며, 그가 말하는 ‘포스트 휴먼’, ‘생기론’, ‘일원론’, ‘유물론’ 등은 모두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철학적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88039&cid=41978&categoryId=41985>

21) 이중관, 『포스트휴먼이 온다.』, 110-18.

22) Roger Scruton, *On Human Nature*, 노정태 역, 『인간의 본질』 (파주: 21세기 북스, 2023), 56-57.

인간성에 대한 논의가 공학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유사 인간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포스트휴먼의 신체적 실현인 인공지능이나 로봇은 “기계적 연속성”으로 환원되므로, “여기에는 목적, 추구, 의도는 부재한 것으로 전제된다. ‘도덕적 행위자’는 ‘의도적 체계’이어야만 하지만, 인공적 행위자와 같은 ‘의도적 체계’는 ‘도덕적 행위자’라고 부를 수 없다.”<sup>23)</sup> 고인석은 인간의 행위는 상대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감수자 체계와 행위자 체계의 성공적인 통합을 전제하고 있어서 자아가 없는 한 행위주체성은 없는 것으로 본다.<sup>24)</sup>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인간성을 인간의 보편적 도덕이나 책임에 건주어 구성하기보다는 법적 책임의 문제로 좁혀 고려해야 한다.<sup>25)</sup>

하지만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단지 윤리적 차원에서 ‘윤리적 주체성’에 대한 질문에만 국한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포스트휴먼이 의도하는 ‘포스트’의 본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휴용은 윤리적 주체의 전제 조건으로서 자율성, 의도성, 책무성 등이 요청되는 것에는 동의하고, 또 아직은 윤리적인 인공지능의 개발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포스트휴먼이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미래 사회의 인간이 인공지능과 복잡한 기술적 네트워크 상호얽힘(entanglement)과 불가분리적 관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것이고, 따라서 인간과 인공지능은 윤리적으로도 상호의존적인 공존관계를 맺어가게 되리라는 것”<sup>26)</sup>임을 밝힘으로써 포스트휴먼을 윤리적 주체성의 관점에서만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의 견고한 틀임을 암시한다. 그래서 포스트휴먼의 관점의 이론적 토대는

23) Joanna J. Bryson,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 Introductory Overview for Law and Regulation,” *The Oxford Handbook of Ethics of AI*, eds. Markus D. Dubber, Frank Pasquale, and Sunit D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30-31.

24) 고인석,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나는 누구인가?’” (미간행출판물: 철학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2017), 75.

25) Rafael Capurro and Michael Nagenborg eds., *Ethics and Robotics*, 변순용, 송선영 역, 『로봇 윤리』 (서울: 어문학사, 2013), 51.

26) 박휴용, “탈인본주의적 AI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적 AI’를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는 묻지』 25/6 (2022), 78.

생태페미니즘과 같은 탈인본주의적 논의가 되어야 하며, 지금까지의 질문이 “인간 존엄성과 자율성, 책임감 등에 기반하여 인류 공영의 목적을 위해 기술적 세계를 어떻게 잘 통제할 수 있을까?”였다면, 이제 “자연생태-인간-기계문명의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들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한다.<sup>27)</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포스트휴먼의 인간성은 탈인간중심주의를 지향하면서 극단적으로는 기계 인간 또는 인공지능의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반영되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본성을 물질로 환원하여 인간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무시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모든 논의를 관철하는 핵심적 질문은 역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며, 이제 이에 대한 신학적 대응을 살펴보자.

#### 4. 포스트휴먼에 대한 신학적 비판과 윤리적 성찰

포스트휴먼 혹은 트랜스휴먼의 상상력이 인간의 종교 개념이나 신 개념에 끼치는 영향력은 기존의 신학계에 근원적인 도전이 될 것이다. 앞서 밝힌 대로, “인간이란 혹은 인간처럼 되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곧 “신은 누가/무엇인가?” 혹은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직결되며, 기독교 신학의 ‘신론’, ‘인간론’, ‘구원론’에까지 교리적이며 실제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록 기독교 성서에서 증언하는 인격적 신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의 ‘신 인식’ 자체를 문제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이 예측하는 종교의 미래상은 그리스도인에게 충격을 준다. 이창익에 의하면, 인공지능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다. 심지어

27) 박휴용, “인공지능(A.I.)은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2/1 (2022), 269.

인공지능은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나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종교적 실천이나 의식을 수행하거나 변화시킬 수도 있다.<sup>28)</sup> 포스트휴먼이 실제로 출현할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뒤로하더라도, 이 논쟁이 기독교 신학에 끼치는 영향은 근원적이다. 포스트휴먼 인간상에 드러난 포스트휴머니티를 신학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오늘의 신학적 과제 중 가장 포괄적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대로, 이 과제는 오늘 인간과 세계에 놓인 모순과 갈등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유전공학, 양자역학, 뇌생물학 등의 발전은 단지 과학적 발전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양식에 대한 변형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단지 교리적이거나 성서신학 혹은 조직신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것이다. 성서가 증언하는 인간과 신의 관계에 토대를 두고 역사적으로 변화해 온 조직신학적 논리들을 연계하여 오늘 포스트휴먼이 묻는 복합적이고 문명사적인 질문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신학에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포스트휴먼에 관해 지금까지 수행된 기독교계 연구들은 전통적인 신학적 관점에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신학적 인간론이라고는 하나 앞서 살펴본 것에 따르면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의 인간성을 공유하면서 포스트휴먼 담론에 참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 중에는 ‘죄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전통적 신학적 인간론의 주제에 기대어 인공지능과 기계가 불순종의 결과라고 비판하는 식의 근본주의적인 관점도 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므로, 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은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인간의 자신감과 책임감을 약화한다고 주장한다.<sup>29)</sup> 나아가 이런 주장들은 인간의 죄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죄의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전대경은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통제하에 두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둔다. 하지만 자칫 지나쳐, 하나님께서

28) 이창익,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산: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휴머니즘,” 『종교문화비평』 31 (2017), 243-44.

29) Gregory S. Mckenzie, “Sons of Disobedience and their Machines: How sin and Anthropology Can Inform Evangelical Thought About AI,” *Eleutheria* 5 (2021/12), 133-34.

‘지으신’ 것이 선하다는 진리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인간’(theosis) 혹은 ‘신격화된 인간’(self-deification)도 선하다는 특이점주의자들의 논리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은 십계명에서 우상을 짓는 것이라고 하여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sup>30)</sup> 사실 전통적 신학적 인간론은 휴머니즘 자체가 타협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으니, 본질적으로 신학과 포스트휴먼의 대화가 불가능해 보인다. 김동환은 그 이유를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자신들의 인간중심적 휴머니즘을 말할 때 의도적이지만큼 신중심적 인간 이해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펼쳐나가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복적이고 압제적인 하나님 개념과 복종과 순종하는 인간의 개념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수명을 무한히 연장하여 죽음을 연기하는 미래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따먹고 영생하려는 욕망”<sup>31)</sup>이다. 그들이 지향하는 비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모습 또는 육체 없이 정신으로서 영생하는”<sup>32)</sup> 것이기에 기독교의 전통적인 구원관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간 창조 사건과 성육신 사건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복음주의적 관점은 신학적 인간론이 지닌 인간의 한계를 포스트휴먼이 무력화할 것을 경계한다. 죽음, 고통, 장애와 같은 한계가 신을 향한 인간의 종교심을 더욱 강력하게 유지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성 붕괴를 염려하기도 한다. “삶의 유한성이 극복되면 인간은 죽음의 실존에서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인간 곧, 유한성을 인식하고 절대자 앞에서 초연해지며, 위기 앞에서 인류 공동체의 연대감과 ‘함께함’의 소중함을 잃어가게 된다.”<sup>33)</sup>라는 두려움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한편으로는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신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기능적 혹은 환원적이거나 심지어 정신과 몸을

30) 전대경, “인본주의에서 초인본주의로 옮겨가는 다문화적 다자능 시대: 자연자능과 인공자능이 공존하는 다가오는 다문화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 「조직신학연구」 30 (2018), 69.

31)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68 (2016), 50.

32)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58.

33) 김광연,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간 양식의 변화 나타난 윤리적 문제들-인공지능시대에 삶의 미정성과 유한성이 주는 가치,” 「한국개혁신학」 54 (2017), 154.

분리하는 이원론적 도식에 기대어 인간을 이해하지 않고 역사와 문화 속에서 맥락과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하는 자아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뜻밖에도 포스트휴먼 인간성과 대화할 가능성을 남겨 놓는다. 특히 삼위일체론은 신학적 인간론과 신론 및 윤리를 통합하는 결정적 교리로서 포스트휴먼의 인간성을 신학적 인간성의 통찰 위에 정립할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해 준다.

포스트휴먼의 실체로서 인공지능과 인간성의 관계를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해명한 학자는 허츠펬드(Noreen Herzfeld)이다. 허츠펬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의 관계성으로 해명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의 관계적 본성도 규정하는 것이라 본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하는 문제는, 타자와의 관계성에 대한 해명이자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심지어 피조물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관련이 있다.<sup>34)</sup> 주로 칼 바르트(K. Barth)의 ‘관계의 유비’를 통해 공동체적 특성을 부각하는 허츠펬드는 인간과 비생명,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관계성에도 이 유비를 개입시키고자 한다. 모든 피조물과 동식물이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그러나 인공지능과 컴퓨터와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대체할 수 없으며, 만약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컴퓨터의 관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인간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인간이 의존하여 공존해야 할 대상에서 인공지능은 제외되는 듯 보인다.<sup>35)</sup> 포스트휴먼의 극단적 입장처럼 인공지능 사이보그나 로봇의 구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피조물’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써 포스트휴먼 논의가 제기하는 주제를 신학적으로 대화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은 아쉬운 결론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관계적 인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조직신학자 김균진은 이것을 삼위일체 세 위격의 사랑의 관계가 곧 ‘하나님의 형상’

34) Norren L. Herzfeld, *In Our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Spiri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6), 9.

35) Herzfeld, *In Our Image*, 85-93.

의 모체라고 본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삼위일체적, 공동체적 규정을 가리킨다. 곧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한 몸의 관계 속에서 삶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야 할 인간의 삶의 규정을 가리킨다.<sup>36)</sup>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해석은 이경건에 의해 수행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Imago Imainis Dei*)’으로 이해하는 관점”<sup>37)</sup>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오리겐, 어거스틴의 경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성화나 성상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람의 형상대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이며, 결론적으로 인간의 형상인 인공지능을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sup>38)</sup> 이 시각은 비록 ‘인간의 형상’으로서 우상이 되거나 타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인간과 인공지능의 위계를 유지하면서도 신학적 인간론과 대화할 여지를 마련하였다.

포스트휴먼의 논의가 인간중심주의와 이원론적 세계 인식에 대한 성찰 그리고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공동체적이며 관계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신학적 인간은 포스트휴먼과 연대하여 기후변화, 경제적 불평등 등과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36) 김균진, 『기독교신학 2』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362. 김균진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도 인간의 독립적인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지적한다. 그는 이레네우스, 어거스틴과 같은 고대 교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imago*)’과 ‘모양(*similitudo*)’으로 구분하여, 전자가 타락 이후에도 남아 있는 이성과 의지의 피조물적 자질을, 또 후자가 타락으로 사라진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본래적 의(*iustitia originalis*)’를 가리키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은 구별이라 본다. 두 가지 개념은 하나님과 인간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지 인간 자체의 내재적 본성이거나 자질이 아니라는 것이다(356).

37) 이경건,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Imago Imaginis Dei*)’으로서의 인공지능 이해: 기독교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 23 (2018), 164.

38) 이경건,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Imago Imaginis Dei*)’으로서의 인공지능 이해,” 167.

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포스트휴먼과 또 온 피조물과 협력과 연대를 위한 규범을 마련할 필요성을 고려해 보자는 것이다. 이런 ‘신인 협력 모델’로서의 삼위일체 이해는 ‘하나님의 형상’을 ‘협력자로서의 인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몰렉(B. Mokhoek)은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하나님의 창조성이 내재된 존재로서 ‘공동창조자(co-creator)’로 해석하는데, 따라서 인간은 그 창조성에 의존하여 인공지능을 ‘하나님 형상의 형상’, 즉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인간을 동등한 지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종속적 창조자에 머물지 않고 협력적 창조자라고 인정한다면, 인간의 개입이나 도움 없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보편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단계에 이르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까지 나아간다.<sup>39)</sup>

현재 급박하게 전개되는 포스트휴먼 논의가 지향하는 가장 중대한 목적은 오늘의 왜곡된 현실 세계의 비윤리적이며 비인간적인 상황을 개선하거나 근원적 원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의에 종교가 참여하여 더욱 풍요로운 해결책을 놓고 토론을 전개해야 한다. 건전한 시민사회의 윤리적 교육을 위해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브라이도티는 근대적 이원론적 인간 이해를 극복하고 생명 중심의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통적인 ‘신-인 변증법’을 넘어서는 신학적 상상력이 이러한 실천에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한다.<sup>40)</sup> 이는 전통적인 신학적 방법론에 대한

39) B. Molhoek, “The scope of human creative action: Created co-creator, Imago Dei and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HTS Theolog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8 (2022), 5-6.

40) Braidotti, 『포스트 휴먼』, 245-7. 전통적인 변증적 신학 방법론으로는 브라이도티와 대화하기는 어렵다. 칼 바르트의 변증적 삼위일체에 기대어 논리를 전개하는 허츨렌드의 논의도 이런 한계를 넘어서기 어렵다. 브라이도티는 “정반합으로 규명되는 배제와 소외의 논법이 아니라 환경을 긍정하는 새로운 관계방식을 설정한다. 과거 마르크스 비판이론이 동물에게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고,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정치적 권력을 부여하기도 하면서 근대의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했다면, 생명중심적 세계에서는 인간 주위와 환경의 다층성을 더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 즉 ‘긍정의 윤리학(affirmative ethics)’이 필요한

문제 제기라기보다 오늘의 세계에 던지는 윤리적 메시지로서 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중심주의’와 결합하여 정복과 지배와 폭력과 힘의 규범을 정당화했다는 반성 아래, 신학적 방법론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포스트휴먼의 문제인식을 공유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 5. 나가며

포스트휴먼 논의는 인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ChatGPT’의 상용화와 로봇의 발전으로 그 실체가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기술발전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정당한 방식으로 그 혜택이 모든 이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그러나 그보다는 포스트휴먼의 상상력은 정치경제적 불평등과 차별과 배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 세계에 경종을 울리고 새로운 인간상을 모색하려는 일련의 사상적 투쟁이 더 근원적이며 신학적인 도전이다. 필연적으로 이 도전은 정치경제학적 논의에 연관되며, 포스트휴먼의 인간성은 오늘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동기가 과학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에 힘입어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철학자 코켈버그(Mark Coeckelbergh)는 누군가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신선한 물 한 모금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현실에서, 또 가장 긴급한 지구의 과제가 기후변화이며 지구의 미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진단을 인공지능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인간중심의(Human centric) 접근이 아니라 환경과 지구 전체를 고려하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한다.<sup>41)</sup>

---

것이다. 본 논문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생명중심의 새로운 윤리 정립에 대해서는 아직 신학적 방법론으로의 수용에는 유보적이며, 다만 이 시대의 모순과 갈등에 던지는 메시지의 함의에 대한 부분을 공감한다. 이 논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위의 책, 245-7.

2018년 <한국기독교윤리학회>는 “포스트휴먼 시대, 기독교윤리학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열린 정기학술대회에서 ‘포스트휴먼 시대를 바라보는 한국기독교윤리학회 신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문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과, ‘포스트휴먼’ 담론이 근대적 인간상을 극복하고 모든 인류에게 윤리적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포스트휴먼 논의의 공론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한 학회는 “모든 이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정의롭고 공평한 ‘포스트휴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한국 교회와 함께 신학공동체로서 감당해야 할 공적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천명하였다.<sup>42)</sup>

포스트휴먼의 인간성 논의는 우선 인간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자극한다. 이는 현재 지구의 우세종인 현 인류에게 성찰과 반성을 요청한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도 이 반성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늘의 왜곡된 세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포스트휴먼 논의는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개선된 인간상을 제시하거나 혹은 극단적으로 아예 다른 인간성을 제안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과 유사한 도덕적, 법적, 정치적 지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토론에 신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전통적인 신학적 인간론을 유지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포스트휴먼의 상상력이 제기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책임적으로 응답

---

41) M. Coeckelbergh, *AI Ethics* (Cambridge: MIT Press, 2020), 184-93. 그는 또한 다른 책에서 “인공지능의 도덕적, 정치적 지위에 관한 모든 논의는 자본주의적 착취를 통해 소수를 위한 이윤 창출에 인공지능이 이용되고 개바를 지원할 위험이 있는 공상과학 내러티브이자 수행”이라고 비판한다. 포스트휴먼 논의가 인간 사회의 ‘주인과 노예’ 제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M. Coeckelbergh, *The Political Philosophy of AI*, 배현석 역,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 (서울: 생각있음, 2023), 279.

42) 현재 이 선언문은 이 행사를 보도했던 인터넷 언론사 <뉴스엔조이>의 다음 기사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이용필, “AI시대, 신학자와 과학자의 대화 필요,”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64> [2018.4.23. 접속].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창조적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선교적 과제이다.

**<주제어>**

포스트휴먼, 인공지능, 인간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공공신학

**<Keywords>**

Posthuman, Artificial Intelligence(A.I.), anthropocentrism, life-centered humanity, public theology

\* 접수일 2024년 2월 14일, 수정일 2024년 3월 6일, 게재 확정일 2024년 3월 6일

## 참고문헌

- 고인석,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 ‘나는 누구인가?’” 미간행출판물: 철학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2017, 67-76.
- 김광연, “트랜스 휴머니즘과 인간 양식의 변화 나타난 윤리적 문제들-인공지능시대에 삶의 미정성과 유한성이 주는 가치” 『한국개혁신학』 54 (2017), 135-64.
- 김균진, 『기독교신학 2』,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김동환, “AI(인공지능)에 대한 신학적 담론의 형성 및 방향 모색,” 『신학연구』 68 (2016), 35-60.
- 김진석, 『강한 인공지능과 인간』, 파주: 글항아리, 2019.
- 박휴용, “탈인본주의적 AI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적 AI’를 중심으로,”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25/ 6 (2022), 71-83.
- \_\_\_\_\_, “인공지능(A.I.)은 윤리적 주체가 될 수 있는가?: 포스트휴머니즘의 관점에서,”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2/1 (2022), 243-77.
- 백종현, “인간 개념의 혼란과 포스트휴머니즘 문제,” 『철학사상』 58 (2015), 127-53.
- 이경건, “‘하나님의 형상의 형상(Imago Imaginis Dei)’으로서의 인공지능 이해: 기독교론적 인간론의 관점에서,” 『신앙과 학문』 23 (2018), 139-78.
- 이용필, “AI시대, 신학자와 과학자의 대화 필요,” <https://www.newsnojor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64> [2018.4.23.접속].
- 이창익, “인간이 된 기계와 기계가 된 산: 종교, 인공지능, 포스트휴머니즘,” 『종교문화비평』 31 (2017), 209-54.
- 전대경, “인본주의에서 초인본주의로 옮겨가는 다문화적 다지능 시대: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다가오는 다문화에 대한 복음주의의 응답,” 『조직신학연구』 30 (2018), 44-83
- Bostrom, Nick, *Superintelligence: paths, Dangers, Strategies*, 조성진 역, 『슈퍼인텔리전스: 경로, 위험, 전략』, 서울: 까치글방, 2017.
-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이경란 역, 『포스트 휴먼』, 파주: 아카넷, 2015.

- Capurro, Rafael and Michael Nagenborg eds., *Ethics and Robotics*, 변순용, 송선영 역, 『로봇 윤리』, 서울: 어문학사, 2013.
- Coekelbergh, Mark, *The Political Philosophy of AI*, 배현석 역,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가?』, 서울: 생각있음, 2023.
- D'agostino, Suan, "A 'Godfather of AI' Calls for an Organization to Defend Humanity," *The Wired*, <https://www.wired.com/story/ai-godfather-yoshua-bengio-humanity-defense/> [2023.10.17. 접속]
- Hayles, Katherine, *How we become Posthuman: Virtual bodies in Cybernetics, Literature, and Informatics*, 허진 역,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 휴먼이 되었는가: 사이버네틱스와 문학, 정보, 과학의 신체들』, 파주: 플래닛, 2013.
- Kurzweil, Ray, *The Singularity Is Near: When Humans Transcend Biology*, 김영남, 장시형 역, 『특이점이 온다.』, 서울: 김영사, 2007.
- Kissinger, Henri, A., Eric Schmidt and Daniel Huttenlocher, *The Age of AI and Our Human Future*, 김고명 역, 『AI 이후의 세계』, 서울: 월북, 2023.
- Lanier, Jaron, *You are Not a Gadget*, 김상현 역, 『디지털 휴머니즘: 디지털 시대의 인간회복 선언』, 의왕: 에이콘, 2011.
- Scruton, Roger, *On Human Nature*, 노정태 역, 『인간의 본질』, 파주: 21세기북스, 2023.
- Borenstein, J. F., S. Grodzinsky, A. Howard, K. W. Miller and M. J. Wolf, "AI Ethics: A Long History and a Recent Burst of Attention," *Computer* 54 (2021/1), 96-102.
- Bryson, Joanna J., "The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e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 Introductory Overview for Law and Regulation," Markus D. Dubber, Frank Pasquale, and Sunit Das eds., *The Oxford Handbook of Ethics of A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3-25.
- Coekelbergh, Mark, *AI Ethics*, Cambridge: MIT Press, 2020.
- Dorobantu, Mariu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eligion: Recent Advances and Future Directions," *Zygon* 57/4 (2022), 984-99.

- Hendricks, Dan, "Survival of the Fittest: The evolutionary case that Humanity is already on its way to giving up its own dominance," *Time* (2023/6), 30-32
- Herzfeld, Norren L., *In Our Image: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Human Spirit*,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6.
- Luchiano, Floridi, "Singularitarians, Altheists, and Why the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H.A.L. (Humanity At Large), not HAL" *APA Newsletter on Philosophy and Computers* 14 (2015/2), 8-11.
- Mckenzie, Gregory S., "Sons of Disobedience and their Machines: How sin and Anthropology Can Inform Evangelical Thought About AI," *Eleutheria* 5 (2021/12), 129-151.
- Molheok, B., "The scope of human creative action: Created co-creator, Imago Dei and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HTS Theologiese Studies/Theological Studies* 78 (2022), 1-7.
- The Economist*, "Chapbots for the bottom four billion," 16-18 [2024.1.27. 접속].
- The Guardian*, "Letter signed by Elon Musk demanding AI research pause sparks controversy," <https://www.theguardian.com/technology/2023/mar/31/ai-research-pause-elon-musk-chatgpt> [2023.4.1. 접속].

<초록>

## 포스트휴먼의 인간성 논의에 관한 기독교윤리학적 비판

-공공신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성석환

(장신대학교 부교수, 기독교와문화)

이 논문은 ChatGPT의 상용화 이후 더욱 긴박해진 포스트휴먼 논의가 제시하는 새로운 인간상에 대해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비판한다. 포스트휴먼은 근대적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의도로 인간의 본성을 기능적이거나 물질적으로 환원하는 극단적 전망과 생명 중심의 새로운 인간형을 통해 오늘의 현실 세계에 만연한 정치경제적 모순과 갈등을 극복하려는 윤리적 전망이 있다. 두 전망 모두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제기하며, 이는 신학적 도전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포스트휴먼의 인간성을 관계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공론장에서 신학적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공공신학적 접근을 강력히 요청한다.

<Abstracts>

## A Christian Ethical Critique of the Posthuman Humanity Debate: Centered on a Public Theological Approach

Assoc. Prof. Suk-Whan Sung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critiques from a Christian ethical perspective the new human image proposed by the posthuman discussion, which has become more urgent since the commercialization of ChatGPT. Posthumanism has two extreme views: one that reduces human nature to a functional or material one with the intention of overcoming modern anthropocentrism, and the other that seeks to overcome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radictions and conflicts prevalent in today's real world through a new, life-centered humanity. Both views raise the fundamental question, "What is human?", which is also a theological challenge. This paper calls for a public theological approach to actively evaluate the humanity of the posthuman based on relational trinitarianism and to communicate theological meaning and value in the public sphere.